

부식비에 일자리까지...강진군 노인복지 박차

경로당 332곳 에어컨 설치...도배·장판 등 시설 개선 노래·체조교실·찾아가는 영화관 여가 프로그램 확대

강진군이 올해부터 노인복지 시책을 대폭 확대한다.

2일 강진군에 따르면 올해부터 어르신들의 보금자리이자 여가공간인 마을 경로당에 부식비를 지원한다.

지금까지 정부지원사업으로 쌓은 공급됐지만, 부식비 지원이 없는 탓에 어르신들이 회비를 거둬 식사를 해결해왔다. 이에 따라 강진군은 경로당 전수조사를 통해 2억5000만원을 투입해 올해 동절기 6개월간 지원하고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군은 특히 회원수에 따라 월 10만~20

만원씩 구간별로 차등 지원해 고른 혜택을 드릴 방침이다.

강진군은 이번 부식비 지원으로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올바른 영양 섭취로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은 물론 소비촉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진군은 이와 함께 냉방기가 없어 무더운 여름을 견뎌야 했던 모든 경로당(332개소)에 올 여름시즌 이전까지 에어컨 설치를 완료하기로 했으며, 실내화장실 및 욕상 지붕설치, 보일러, 도배·장판 등 시설

개선 사업에도 나선다.

군은 또 마을 경로당을 찾아 순회하는 레크·노래·체조교실도 올해 90개소에서 130개소로 확대하고 신규로 미술교실을 개설해 어르신들의 여가생활을 돕는다.

강진군은 지난해 오지마을 경로당에서 진행한 '찾아가는 작은 영화관'도 60회에서 올해 180회로 확대·운영한다. 특히 2017 남도당사 1번지 강진 방문의 해를 맞아 군정 홍보영상 시청도 병행하기로 하는 등 군정의 동반자로 어르신들의 참여와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강진읍 서부지역인 속칭 지전안에 노인대학 설립도 추진된다.

지전안은 읍 지역임에도 교통이 불편하고 비닐하우스 농업에 주민들이 다수 종사

하고 있어 읍내 노인시설 이용이 어려웠다는 점에서 노인대학이 설립되면 지전안 10여개 마을 어르신의 상대적 소외감도 크게 해소될 것이라는 게 강진군의 설명이다.

군은 또 남성리에 있는 강진읍복지관이 이용자에 비해 협소하다는 지적에 따라 1억 2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경로식당과 강당을 증축하고 주차장도 조성하기로 했다.

노인 사회활동을 유도하고 경제적 도움도 주는 노인일자리사업도 군의 핵심사업으로 지정하고, 올해에는 1000개의 일자리 사업에 2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100세 시대를 맞아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미래의 강진도 없다는 각오로 노인 복지시책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



장흥군 4대 폭력예방 여성친화도시 캠페인

장흥군은 "최근 장흥읍 중앙로 일대에서 관내 유관기관 11개 기관이 참여한 4대 폭력예방 및 여성친화도시 합동 캠페인을 추진했다"고 2일 밝혔다. <사진> 이번 캠페인에는 장흥군과 장흥지청, 장흥교육지원청, 장흥경찰서, 장흥우리병원, 장흥종합사회복지관, 여성단체협의회, 여성친화도시모니터단 등 11개 기관의 관계자 및 지역주민 150여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연말을 맞아 성폭력·성희롱·성매매·가정폭력 등 4대 폭력과 아동학대, 학교폭력 등을 근절하고 여성이 안전한 지역 만들기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국 최초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장흥군은 여성이 존중 받고 남성이 배려하는 모두가 행복하고 사랑받는 '어머니 품 같은 장흥 만들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장흥=김용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

장흥군·한국해비타트 '희망家꾸기' 11호 준공 회진면 지적장애 모녀에 새 집 선물

장흥군과 한국해비타트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희망家꾸기' 11호 준공식이 최근 회진면에서 열렸다. <사진> 장흥군과 한국해비타트는 업무협약을 통해 저소득가정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장흥군과 한국해비타트가 함께하는 희망의 집짓기, 희망家꾸기'를 추진하고 있다. 늙은 노모와 살고 있는 희망의 집 11호 대상자는 지적장애를 가지고 자활사업에 참여하며 어려운 살림을 꾸려가던 여성으로, 한국해비타트의 지원을 받아 33㎡ 규모의 따뜻하고 아늑한 집으로 이주했다. 낡고 오래된 주택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동안 정남진도타리클럽과 진관건설에서 폐기물 처리와 석축 쌓기 등을 무상으

로 도와주며, 한국국토정보공사는 경계측량, 건축사무소 정건축사에서는 주택설계와 인허가 부문을 지원했다.

두 모녀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후원도 이어졌다.

'모든 사람에게 안락한 집이 있는 세상'이라는 비전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집을 짓고 희망을 전하는 해비타트는 배태관 건축팀장 4명이 2주 동안 장흥읍 머물며 주택 건축을 도왔다.

건축팀장들은 두 모녀가 함께 살 수 있는 햇볕 잘 드는 아늑 베란다를 선물로 설치했다.



김성 군수는 "희망의 집 11호가 신축되기까지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장흥군과 한국해비타트는 앞으로 목조주택 신축 1동과 저소득가정 개보수

7가구의 주택에 대해 실내화장실 설치, 지붕보수, 입식부엌, 도배·장판 교체 등 장흥 저소득가정의 주거환경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장흥=김용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

KTX 서울역에 강진청자 2점 전시

강진군 고려청자박물관이 최근 강진청자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KTX 서울역 2층 맞이방에 명품 강진청자를 전시했다. <사진> 이번에 전시한 작품은 국보 제68호를 재현한 청자상감운학문매병과 청자상감운학문병 등 2점으로, 높이 80cm의 대형작품으로 전시돼 웅장함이 돋보인다. 고려청자박물관은 '2017 남도당사 1번지 강진 방문의 해'를 맞아 전국 주요 시설 및 공공기관 전시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는 등 강진청자 홍보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



광주은행 윤홍주(왼쪽) 지점장이 강진원 강진군민장학재단 이사장에게 장학금 1000만원을 기탁하고 있다. <강진군 제공>

외식협회 강진지부 300만원·광주은행 1000만원... 강진군민장학재단 장학금 기탁 줄이어

지역인재 양성의 주춧돌인 강진군민장학재단에 장학금 기탁이 이어지고 있다. (사)한국외식업중앙회 강진군지부(지부장 문막래) 회원 일동은 최근 강진군수실에 방문해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금 300만원을 군 장학재단에 기탁했다.

문 지부장은 "강진의 학생들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발판이 되고 싶어 장학금을 기탁하게 됐다. 회원들의 작은 정성이 그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강진군 양계협회(회장 윤원주)와 광주

은행(강진지점장 윤홍주), 강진군 문화관광해설사회(회장 이윤미)에서도 각각 200만원, 1000만원, 100만원의 장학금 기탁이 이어졌다.

강진군 양계협회 윤원주 회장은 "AI 피해로 전국의 양계농가가 매우 어려운 실정 이긴 하지만, 오래전부터 어린 꿈나무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 장학금을 기탁하게 됐다. 미약하나마 강진군 인재육성에 힘을 보태고자 한다"고 밝혔다.

광주은행도 지난 2005년 장학재단 설립 초부터 매년 장학금을 기탁해 오고 있다.

최근 부임한 군동면 출신 광주은행 윤홍주 지점장은 "지역사회에 많은 도움과 사랑을 받고 있다. 어려운 시기 강진에서 받은 따뜻한 사랑과 애정을 환원하고자 장학금을 기탁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윤미 강진 문화관광해설사회장은 "자랑스러운 강진의 관광자원을 관광객에게 알리면서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면서 "학생들도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공부할 수 있도록 작은 도움이 되고자 장학금을 기탁하게 됐다"고 기탁소감을 밝혔다.

강진원 강진군민장학재단 이사장은 "지역인재육성의 초석인 군 재단에 장학금을 기탁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소중한 기탁금은 강진의 학생들이 더 나은 여건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

새 얼굴 "기본에 충실...안전 소방행정 펼칠 것"

장경숙 영암소방서장

"영암군민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안전한 지역 만들기에 집중하겠습니다"

지난 1일 영암소방서장으로 취임한 장경숙(56) 서장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소방행정을 펼치는 한편 기본 원칙을 준수해 화목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호남지역 첫 여성소방서장이기도

한장 서장은 "호남지역 최초의 여성소방서장으로 취임한 만큼 막중한 책임감도 느낀다"면서 "전남소방본부 150여 여성소방공무원들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영암=문병선기자 moon@



급, 사고 좋은 땅

- 전남 담양군 금성면 대성리 30-47번지 외 13필지 / 담양댐 하류 바로 옆
- 토지 6000평 / 계획관리지역
- 관광특구로 관광자금 유치가능
- 담양온천 1분 거리
- 전원주택 오토캠핑장 펜션 가든 온천 호텔 등등 모든업종 가능
- 개발 후 70억 이상 가치 있음
- 급매 - 17억 (일시불)
- 문의 H. 010-3605-5000

장/단기, 투자가치 좋습니다.

- 전남 나주시 남평읍 우산리 532-32번지 외 6필지 (전남 노인요양원 바로 옆)
- 토지 6256평 / 건물 256평, 계획관리지역
- 백운동 20분, 남평 10분, 강변도시에서 5분
- 현재 양어장 운영중
- 인근 전원주택 단지 평당 70만원 씩
- 전원주택, 캠핑장, 펜션, 가든, 식당, 요양원 등 모든업종 가능
- 매매 - 18억 7600만원 (평당 30만원)
- 주인직매 H.010-3605-5000